

연 중 제 31 주 일

기 도 서 P. 469 C해

1 독(저서 11, 23-1, 2.2-22절)
2 독(데살후 1, 11-2, 2절)
복음(루 가 19, 1-10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감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칼론□



구원 받은 자캐오

문 규 현 신부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죽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배 갑질은 갚아 주겠습니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자캐오와의 만남-대화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 당시의 사정을 보면 세리(稅吏)를 아주 경멸했다. 그들은 국민들을 수탈해서 로마 정부에 바쳤다. 자캐오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관장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캐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자캐오가 예수님이 보고싶어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랐었고, 예수님께 제 잘못을 고백하고 보속행위를 자청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잃었던 사람, 자캐오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자. <돈많은 세관장 자캐오>(루 가 19, 2)들은 바로 누구인가? 비로 부정 도입, 엄청난 탈세, 뇌물 주고받기, 미공법 480호 양곡 도입에 따르는 시끄러운 파문, 정부 공사 누설에 따른 폭리 사건 등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또 있다. 구조약에서 벗어나는 일들 말고도, 농약파동이나 시멘트 파동 등의 파동에 편승해서 상식 이하의 처세로 율쟁이 <돈 많은 세관장 자캐오>가 된 사람들도 있다.

오늘 이 땅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년이 들었다고 해도 농민들이 울짙을 짓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수출액이 80억을 넘는 경사가 났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어깨가 항상 축 처져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오늘을 잘살고, 내일 더욱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불신과 미움을 씻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 가르치는데로 <돈 많은 세관장 자캐오>는 <구원 받은 자캐오>로 변모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죽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배 갑질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눈속임은 없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부정축제를 했대서 현납도 하고, 재산의 일부를 매내서 자선사업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무슨 성금을 많이 내는 일로 어떤 일들이 잘 끝난다는 소문도 있다. 자신이 거느리는 종업원들이 당하는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이 얼마라고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한다고 떠벌이는 일에 불신감이 고개를 쳐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면세의 혜택을 바래서 하는 문화사업이나 자선 사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바로 <돈 많은 세관장 자캐오>가 아닌지 다시反省해보자.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야훼를 기다리는 자 땅을 물려받느니라(시편 37, 9).”

(고산 전주교회 주임신부)



알 립 니 다

지난 10월 18일(화) 오후 8시 안동 동부동 성당(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서울, 인천, 수원, 전주, 광주, 대구, 마산, 부산, 청주, 춘천, 원주교구에서 모인 35명의 사제와 다수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민, 근로자, 양심수인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었다.

본 기도회 관계로,

1. 기도회 주제 강론을 하신 이춘우 신부님(상주 남성동)은 10월 19일 오후 3시반 상주에서 안동으로 연행 되셨고,

1. 공동체 나눔 시간 중 양심수인과 함께 하는 합세웅 신부님의 상고 이유서를 낭독하신 유강하 신부님(안동 목성동)은 동일 오후 4시경 인동서에 연행 되셨으며,

1. 사제단의 결의문을 낭독하신 과동철 신부님(청주교구 부강본당)은 동일 오후 4시 충북 보은에서 안동으로 연행 되셨으며,

1. 정호경 신부님(교구 사목국장)은 10월 20일 오전 10시경 안동서로 연행 되셨으며,

1. 노동자와 함께 하는 공동체 나눔 시간 중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탄압행위에 대한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한 이정모 신부님(문경 겸촌)은 10월 20일 오후 7시경 문경군 겸촌에서 안동으로 연행 되셔서 모두 다섯분의 신부님이 연행되어, 10월 22일 9시 현재까지 나오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0일부터 안동 목성당 성당에서 사제단과 안동 목성, 동부양 본당 신자가 모인 가운데 양심수인과 다섯분 사제를 위하고 신자들의 다짐도 되새기기 위한 기도회가 매일 저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루 빨리 가난한 형제들, 억눌리고 갖힌 형제들 소외당한 형제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참된 총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손을 모아 야 하겠습니다.

(안동교구 「공소시목」지 제222호(77, 10, 30)에서)

숲 정 이 산책



목주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그림자!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

범아시아 특별 연수회 및 지역대회를 마치고

정 승 현 산부



지난 9월 4일

처음으로 타보는 비행기로 이곳 마닐라에 도착했다. 물론 외국에 나와보기도 처음이다. 교구에서 함께 오신 정주복(아오스팅)선생님도 마찬가지로여서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 내무나 많았다. 비행기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는 일, 이국에서 먹고자고 인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처음 다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6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 달반 가량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언어, 풍습, 음식, 기후등이 다른 곳에 모여 와서 서로를 이해하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할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하 마리아씨(마산), 최세라피나 수녀(살트르바오르회), 현석호 회장님, 김정용 신부(광주), 박문선 신부(부산), 박성중 신부(서울), 송주석 신부(인천), 권오정 신부(청주), 그리고 정 선생님과 나 이렇게 10명이 참석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5명), 인도(3), 필리핀(15), 싱가포르(3), 홍콩(1), 인도네시아(1), 타이랜드(13)에서 참석하고 가까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3명이 참석했다. 국제 멤버로는 쿠베로 신부(롬바르디 신부의 뒤를 이은 총 책임자) 카펠라로 신부(영성담당) 마놀로 롱가 신부(교육담당), 존와드 신부(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지역담당) 호세미라 신부(남미지역 담당) 막스타지 신부(유럽 지역 담당), 그리고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루시엔 신부가 참석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서 참석치 못한것, 그리고 아프리카를 담당할 미리수잔 수녀님이 이곳에 오셨는데도 말라리아로 입원하시는 바람에 만나 뵈지 못한것이 못내 서운했다.

아시아 지역 특별 연수회 (9.5-9.30)는 MBW 멤버들의 소명 내지 사명을 깊이 깨닫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 멤버들의 말씀뿐 아니라 각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했다. (1)교회와 세계 안에서 우리들의 위치, (2)봉사의 특징 (예언적-일치-온 세계의 구원), (3)구체적인 행동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물안 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보고 놀라는 나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잠깐 쉬는 동안 바기오라는 곳을 관광했다. 5000피트가 넘는다는 고지대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로서 수많은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문명과 문화의 이기(利器)를 다 갖춘 곳이었다. 오가는 동안 길 옆으로 무한히 뻗어있는 사탕수수 밭과 열대 과수들이 이국 풍경을 더욱 느끼게 해주었다. 바기오에서도 공부하고 계시는 수녀님들을 뵈분 만났고 한국의 어느 회사

사원도 만났는데 어느곳에서나 한국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성장된 증거일 것이다.

10월 3일 저녁 미사로씨 범 아시아 지역 대회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문제들을 묵상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이미 1974년과 금년 2월에 열렸던 아시아 주교회의에서 모색했던 문제들이 다시 거론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소개하면 "아시아의 MBW는 그나라 그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모든이와 함께 교회 안팎의 여러 공동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자, 젊은이,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속에 강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초교회 공동체(Basic Christian Community) 형성에 온힘을 다 기울이기로 하였다.

13일 낮 미사로씨 모든일정을 마치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타이랜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가브리엘이라는 불란서 수녀님이 당신 영명축일에 축하 키스를 해달라고 졸랐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축하겸 작별의 키스를 해드렸다.

한주일에 한 두번씩 가졌던 레크레이션도 못 잊을 일종의 하나다. 나는 수녀님과 한복을 차려 입고 현 회장님과 하 마리아씨에게 세배를 드렸고 아리랑도 불렀다. 복자축일, 추석, 개천절. 한글날을 이국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모두들 축하 해주었다. 추석날은 특별히 한국음식과 노래, 풍속등으로 즐겁게 해드리려 했는데 하필 그날 신부님이 두분이나 입원하시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글날에는 이곳 한인교회에 가서 특별예배를 보았다. 설교는 내가 맡아했는데 그런대로 잘한것 같았다. 그동안 현석호 회장님, 정주복 선생님과 더욱 깊은 정과 존경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모두 떠나시고 나만 남게 되었다. 더욱 올바르게 봉사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이곳에 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동안 건강하게 (사실 현회장님과 나만 앓지 않았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 왔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고 바란다. 그동안 이곳에서 또 고국에서 도와주셨던 모든이에게 감사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977. 10. 15 마닐라에서

M^c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 주 특 약 점

고급화원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4451 품념제과 분점양



알루미늄 백철 합금 통주물 제품입니다
수압 2kg/cm, 두께 0.5~6cm 로써 안전함
취사와 난방 겸용하여 연료절약 50%임
시공과 사용이 간편하며 가스위험 100%방지
만능 보조 급수 탱크가 특징입니다

한 일 연 탄 온 수 보 일 러

박 성 안 (소시모)

부안읍 서외리 2구 동양극장 앞 ☎ 1004 번



□ 성서교실(23) □

베드로의 둘째 편지

전 종 복

1. 저자 : 이편지의 저자는 스스로 사도 베드로(1,1)라고 하며, 예수의 거룩한 변모를 목격(1,16-18)했다고 한다. 또 자기가 쓰는 두번째 편지(3,1)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베드로의 친저성을 대부분의 개신교와 많은 천주교회의 성서 주석가들은 부인하거나 의문시한다. 그 이유로 첫째 : 회랍어를 잘 모르던 베드로사도가 우아하고 장중한 회랍어를 구사했음에 없고, 첫째 편지보다 훨씬 많은 헬레니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던 종교적 용어들—하느님의 인식(1,2; 6,8; 2,20), 하느님의 신능(1,3),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함(1,4)—을 사용할리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 유다의 편지가 이 편지보다 전에 저술되었는데, 유다1,4-16과 이 편지의 2,1-18이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편지의 저자는 유다의 편지를 인용한 것이 확실하다. 셋째 : 이미 바오로의 서간집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3,16), 예수의 재림사상이 현저하게 퇴화되고 있다고 지적(3,3)하고 있는 데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A. D. 70년)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임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 편지는 베드로가 기술했던 것이 아니고, 1세기 말에 익명자에 의해 기술했다고 본다.

2. 수신인 및 집필 동기와 시기, 장소 :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베드로의 첫째 편지의 수신인들과 같다(3,1)고도 하지만 그것은 저자가 적당히 꾸며낸 것이라 보며, 실제로는 이 편지가 일반 신자들을 상대로 한 편지(1,1)라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편지는 당시 교회내에 퍼졌던 그리스도의 재림사상에 관한 오류를 시정하고(1,16), 신앙과 희망에 관해서 조소하는 무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3,3) 쓰여진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의혹(3,3)은 로마 주교 팔레멘스(제4대 교황)의 제1 서간 23장 3절 이하에도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 서간은 A. D. 95 혹은 96년에 저술되었으므로, 베드로의 둘째 편지의 저술 시기도 역시 대략 1세기 말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집필 장소는 로마인지 이집트인지 확실한 근거가 없어 알 수 없다.

3. 내용 : 크리스찬으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영감을 받은 예언자의 말씀이며, 하느님의 증인이고 사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이니, 신자들은 이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1장).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유연비어를 퍼뜨리고, 방종한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나, 구약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자들은 엄한 심판을 받으리라(2장).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의심하고 조소하지만,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시리라(3장).

이 편지는 위의 교리와 윤리적 가르침의에 유다의 편지와 바오로의 서간집을 성서로 인용하여 신약성서를 증언하고 있으며, 성서는 각자의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구세주께 대한 믿음이란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요심이 (222) 김병오



□ 개업 안내 □
 벵타이, Y셔츠,
 양말, 스킨도산매
한 바 다
 박종철(야오킵)
 이윤례(테레사)
 전주시 중앙동
 신세계 테파트 ← → 구라과 제과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난방시설은

한국온수온돌

이리구시장 ☎ 4940
 군산철과시장 ☎ 3032

◎양심을 찾자
 카메라대여, 학교 각종 사진출장

중앙사진관

한원규(야오보)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 현대 칼라 특약점 □

태양사

김스테파노(중범)
 -특수 촬영 기술 무료로
 -고급 카메라 대여, 수리전문
 -회갑·결혼 야외 칼라사진출사
 -각종 칼라 필립 판매
 정읍 소방서 앞 ☎ 5404번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명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5116, 6114, 3547번

공
지
사
항

1. 안동교구에서 있었던 농민을 위한 기도회 관계로 유강하·정호경 신부 입건
※이준우, 이정모, 박동철 신부는 22일과 23일에 풀려났음

- ※10월 31일 오후 7시 북성동 성당에서 기도회 있음
- 2. 11월은 위령성월! 먼저가신 조상들과 가족, 친지, 은인들을 위해 미사봉헌하고 기도합시다
- 3. 전주교구 교리교사를 위한 심포지움 (11월 19일(토)오후 3시-20일(일)오후 4시)
- 4. 제 2지구 응변대회(11월 27일(일) 오후 2시, 문물동 천주교회, 원고접수 11월 15일(화)까지)
 - ①내용-봉헌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신자들의 자세
 - ②자격-2지구내 분당 신자(중등부 4-5분, 중등부 5-6분, 고등부-6분, 일반부-7분),
 - ③200자 원고지에 원고를 써서 분당신부의 추천서와 함께 제출할 것
 - ④시상-전체 특상, 각부 특상 및 최우수상
- 5. 혼인문제 상담(11월 8일(화)오전 10시-오후 5시, 교구청 응접실)

□ 방송안내 : MBC T.V. 다음주일(6일) 오전 8시, 「호남제일성」,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정승현 신부님 주소 Fr. Joseph Cheong / P.O.Box 1664 / Sta Cruz Church Manila / Philippines

(중앙)

전화 ③651 3651 주임 신부 서용복
 ③3874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 1. 월례회 ① 사도회-오늘 공식미사 후
- ② 어머니 합창단-3일(목)11시
- ③ 성심 부녀회-4일(금)어머니 미사후
- 2. 11월부터 미사시간 변경(※ 시간표는 별지 참조)
- 3.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 주일과 같이 미사참여 의무 있음, 미사시간-오전 6시반, 오후 7시반
- 4. 위령의 날(11월 2일), 먼저가신 분들을 위해 미사 봉헌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04, 145원

(노송동)

전화 ③ 370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웅
 사도 회장 박종용

- 1. 재속 형제회, 청신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모든 성인의 날 : 11월 1일, 오후 2시미사(저녁 미사 없음), 미사중에 방ziger 3회 입회식과 서약식 있으니 회원 참석 바람
- 3. 위령의 날 : 11월 2일, 오전 10시, 저녁 7시미사
- 4. 유아동 가정방문 : 11월 2(수)-3(목), 구역장, 반장님 준비바람
- 5. 남성 꾸러실리스타 모임 : 11월 6일(일)밤 8시, 꼭 참석바람

□ 축 결혼! 유창원군, 이현주(메레사)양, 11월 5일 박세웅군, 이기옥(크리스티나)양, 11월 6일 오후 2시반

□ 전교 주일 헌금 : 52, 851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 1. 사도회 임원 개편 : 수고하시겠습니다, 사도회장-김용환, 부회장-유재상, 양석승, 각 정-부위원장(전례-전갑관, 이철중, 전교-김은식, 김성근, 재경-김용식, 이성기, 봉사-고정수, 김찬영), 고문-엄기섭, 유훈석, 최낙범, 송영기, 조준석, 김수곤, 임옥순, 감사-김정구, 소완영
- 2. 신축현금 수입 : 신원휘, 중앙 조마리아, 안선례, 김찬영(각 5천)권순희, 최복례(각 1천), 육중기, 박순자, 사랑하을 모친, 전당리 자모회, 포마리아, 엄기섭(각 1만), 국환철, 이인순, 이석초(각 3천), 최덕혜, 성차제(각 5만), 박태복, 분당 부녀회, 남상우(각 2만) 총계 10, 526, 000원

□ 지난주 봉헌금 : 41, 32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1. 11월은 위령 성월! 모든 연령위해 매미사후 연도바침
- 2. 주일학교(매주일 오후 3시, 4시미사) 꼭 보내주세요
- 3. 추가분, 미납분 교무금 속히 납부 바랍니다
- 4. 덕진 성당 건립 위해 판매한 참가름값, 성모의 밤에 찍은 사진대금 속히내 주세요
- 5. 파타마 성모상 가정 방문 : 31일-최소피아, 1일-고마리아, 2일-유레지나, 3일-노미카엘, 4일-장베드로, 5일-이정용, 6일-이상기, 7일-최용구
- 6.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임원 전원 참석바람

□ 전교 주일 헌금 : 43, 53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2. 애령회 기도반 (11월은 위령의 달입니다)
 - A조-정길순, 김진례, 장복순, 김옥노, 남순이, 김철이, 김희이, 안경순, 박정자, 윤성순, 한순래, 정영순, 김희이, 손선, 김순임, 한완순, 박봉이, 한완순, 심금남, 이광순, 김복임, 김행자 / B조-강규선, 오상원, 한형순, 이정반, 이양환, 김한기, 박형식, 박종중, 갑, 조동근, 장봉환, 손홍열, 장인석, 박복규, 장남준, 김광수, 최병화, 고동춘, 진판식, 박기홍, 송기봉

□ 전교 주일 헌금 : 37, 845원

(술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1. 애령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 11월 5일(토)10시
- 3. 진북동 11월 반상회 : 2동 1반-1일, 안계주 맥, 2동 2반-3일, 정은주 맥, 2동 3반-5일, 부녀회장 맥, 1동 1반-7일, 김중환 맥
- 4. 11월부터 미사시간변경 : 평일-매일 저녁 7시

□ 전교회 (회비-년 500원)에 가입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72, 70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석중

- 1. 성지순례 : 오늘 8시, 미리내 복자 김신부 경당 (버스 4대)
- 2. 클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반
- 3. 예비자 교리 : 주일 9시 미사후-이수녀님, 10시 미사후-장수녀님, <수>7시반 미사후-보좌 신부님, <금>7시 밤 미사후-주임 신부님
- 4. 새성당 소식 : 내부 미장 공사중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5, 740원

계설·갈리·허가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자> 3-1449

☆ 교고·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이리경문학원

◎이리역 앞(서울 신막은행4층) ☎ 5943

□ 검정 고시반(78년4월, 8월패비 대입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